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대림절 : 오늘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환경세미나 : 오늘 오후 1:30, 교육관에서 <에너지 이야기>를 주제로 환경 세미나가 열립니다.

방문, 예배 : 오늘 오후 평화위원회와 청년부가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실을 방문 후 안산분향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마당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기도회 : 이번 주 수요저녁집회는 폐제 찬양과 기도회로 모입니다.

사람책 : 다음 주일(6일) 오후 1:30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사람책>이 열립니다. 김대근 교우(마을 예술 창작소 '창고' 대표), 정현모 집사(KBS 책임 프로듀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도 당회가 12월 13일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기획위원회가 12월 5일(토) 오전 10:00, 교회에서 모입니다.

활동 보고 : 각 선교회장, 부서장, 기관장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세례입교교육 : 이번 성탄절에 세례 받기 원하는 이와 입교하기 원하는 이는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 12월 5일(토) 오후 2시, 입교교육 : 12월 12일(토) 오후 2시

결혼 : 박준영 씨와 최이랑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2월 5일(토) 오후 2시 스칼라티움 상암 월드컵점 2층 오르홀에서 있습니다.

1부	말 3:1-4 / 눅 1:68-79	2부	
예배	빌 1:3-11 / 눅 3:1-6	예배	요 1:19-28

오늘 식당 봉사 : 박성실 윤영미 김향자 김혜정 송인선 박범희 허호범
다음 주 식당봉사 : 권미숙 강지선 조정자 최옥자 황재모 김대근
오늘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46-5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41-45세)
커피 판매 봉사 : 5남선교회
떡 대 접 : 강석남 이현숙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대림절 제1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0. 전능왕 오셔서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빛과 소금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고 곳곳에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쉽게 입을 벌려 남을 탓하고 손가락질하던 버릇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몸을 던져 그 어둠을 몰아내고 상한 곳을 치유하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입을 것과 잘 곳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사60:1,2 인도자

♣ 교 독 문 115. 구주 강림(1)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대표기도 김근종 권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104. 곧 오소서 임마누엘 다 함께

♣ 성경봉독 1. 렘33:14-16 살전3:9-13 눅21:25-36 김윤하 선생
 II. 합 2:1-4 허호범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대림기도 찬양대

말 씬 I. 등불 같은 얼굴 김재흥 목사
 II. 그날은 반드시 온다 김기석 목사

성 찬 식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구재원 김경혜 김세진 김순자 김애경 김인식 이선화 김중수
 이순정 김철수 유영남 김혜영A 김희선 박병구 박상욱 임서영 안세진 오숙현
 오자영 이건우 이계숙 이경남 이근식 신영신 이부곤 이영욱 장은주 이예서
 이우원 옥귀희 이유선 이유진 이재삼 전정현 이정은 이주경 이주영 오재영
 임서영 임 영 정경례 임형욱 장동훈 정은선 장재영 김재영 전영린 정현숙
 조현권 박아영 최형균 강경화 한완식 임정자 한인철 조윤숙 한훈식 허준호
 흥소형

감사헌금

강금분 강세기 이소애 강인식 김정숙 김보라 김태정 김항자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설규범 이광석 이경희 이범석 류정욱 장원호 박성희 정아름
 흥순구 안홍숙 황재모 강지선 무명14

녹색꿈헌금

윤미경 윤수진 최성애 무명4

생일감사헌금

송희원 채원 우석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백혜숙	박성희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최경미	임정자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박숙미	장영숙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김경수	안정숙
시온	권미숙	박미영	박효선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김재광	윤미경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야외	노성희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김경혜	안현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박혜경	이기분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감자의 몸

감자를 깎다 보면 칼이 비껴가는
 움푹한 웅덩이와 만난다
 그곳이 감자가 세상과 만난 흔적이다
 그 흠에 몸 맞췄을 돌맹이의 기억을
 감자는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벼랑의 억센 뿌리들처럼 마음 단단히 먹으면
 돌 하나 깨부수는 것 어렵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뜨거운 하지의 태양에 잎 시들면서도
 작은 돌 하나도 생명이라는
 뿌리의 그 마음 마르지 않았다
 세상 어떤 자리도 빌려서 살아가는 것일 뿐
 자신의 소유가 없다는 것을 감자의 몸은
 어두운 땅속에서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보니 그 웅덩이 속에
 씨눈이 하나 움글게 맺혀 있다
 다시 세상에 텃줄 댈 씨눈이
 옛 기억을 간직한 배꼽처럼 불거져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독을 가득 품은 것들이라고
 시퍼런 칼날을 들이댈 것이다

- 길상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620. 여기에 모인 우리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도록 사십시오.	
다 함께: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날이 오고 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오시는 주님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교만과 거짓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승리를 믿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환경 세미나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 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민선 선생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송형운 권사

11월	영접위원	김정민 권혁순 정현모 이혜령 유경순 박경원
	헌금위원	한완식 김경혜

대림절 성찬식 순서

(보좌위원들은 성찬대의 보를 걷은 후 떡과 포도주 그릇의 덮개를 연다)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집례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의 세계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회 중 :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만찬 기도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저희가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불신과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헤맬 때에도

회 중 :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며 희망의 불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집례자 저희를 어둠에서 구하시고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사 저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회 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실 그 영광과 평화를 기다리며 웃음을 여미고 자리를 정돈하고 마음의 마구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함께 :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성찬 제정사 / 집례자

집례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떡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 / 집례자

집례자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여기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회 중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영광 찬양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회 중 :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회 중 :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 중 :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회 중 : 아멘.

평화의 인사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눔)

분병례 / 집례자

집례자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회 중 아멘.

분급 / 집례자와 보좌

- 모두 앞으로 나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을 마치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아 기도합니다.

성찬 후 감사기도 / 다함께

참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빛 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참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 성찬식의 전병은 우리밀로 만든 것이며, 포도주는 홍월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